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2(土)	23(日)
흐린후 맑음 6/12℃	흐린후 맑음 5/8℃

#### News

- 한나라당 '논공행상' 처벌 ②
- 실직자 자녀 희망 발표회 ③
- 박지성 23일 복귀전 ⑬

#### Jeollado

- 그 사람-이매방 선생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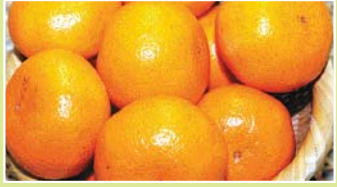


#### Entertainment

- 메디컬 드라마 뜬다 ⑧
- 연말 가족 영화 풍성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귤 ⑬



유망직업 전망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  
http://www.jnsci.ac.kr



담양군 대덕면에 위치한 대덕바이오텍 생산공장을 찾은 농민들이 친환경 비료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담양 '유기농사관학교'를 아십니까

바이오 신물질 단독 개발 '대덕 바이오텍'  
친환경 유기질비료 '한가위' 등 20종 생산  
한달 전국서 500명 방문... 연 매출 150억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대덕 바이오텍(대표 김영선·하영훈,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에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면면도 친환경 농가에서부터 전국 각지의 농협관계자,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 농민단체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방문객들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평균 200~300명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500명을 넘어선다. 대덕바이오텍은 일일 방문객을 제쳐두고 방문 일정 조정에 진땀을 흘릴 정도다. 대덕바이오텍이 전국 친환경 농가가 꼽는 최고의 바이오 농업 사관학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설립한 지 겨우 5년을 넘긴 이 업체가 '한미 FTA 등에 따른 개방시대의 대안'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김영선 대표의 체계적인 경영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1985년 이후 여러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김 대표는 경상대 시설원예연구센터와 공동연구에 돌입, 7년여 만에 국내 최초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좌우하는 신물질 단독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일본 나고야 농대와 중국 산둥성 비료공작장에서 바이오

신물질을 혼합한 비료의 우수성을 검증한 뒤 2002년 대덕바이오텍을 설립했다. 대덕 바이오텍에서는 대학 교수와 회사 영농지도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 비료홍보와 함께 유기질비료를 이용한 6단계별 미생물(OM)농법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비료판매량도 수직 상승했다. 32명의 직원과 전국 8개 영업소, 82개 대리점을 보유한 대덕바이오텍의 매출은 2004년 2억4천만원, 2005년 8억4천900만원, 2006년 26억원, 올해 75억원에 이어 내년 15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덕바이오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한가위'를 비롯해 토양개량제 '호미손', 친환경 방제용 한방생약제제 '한방생' 등 모두 20여종에 달한다. 이들 제품에는 비공개 신물질이 꼭 들어간다. 1t당 8천만원을 호가하는 이 신물질은 땅심을 돋우고 잡초발아를 90% 이상 억제하며, 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들 비료를 이용해 6단계 농법을 추진할 경우 10a(300평)당 3만원이 소요되는 우렁이 농법에 비해 17% 가량 생산비를 절감된다. 또 잡초제거 등에 들어가는 일손을 덜어주고 수확량도 일반 농법에 비해 15~20%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김 대표는 "향후 재배에서부터 시비, 유통·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커리큘럼화해 위기의 농촌·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회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탈락

### 전남도 첨단산업 클러스터 유치 계획 차질

목포 신항만 지역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탈락해 이들 지역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려던 전남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21일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 군산·새만금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반면 목포시 신항만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지역, 무안군 기업도시, 해남 화원관광단지 및 북합단지, 신안 조산타운 등 5개 시·군 8개지구 183.2km(5천500만평)의 전남 서남권 일대는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남과 강원지역의 경우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 여건이 미성숙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서남권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늦은데다 기존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며 "새정부가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한 민관 철저한 준비로 다음번 경제자유구역 지정때 다시 신청하

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 서남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입지여건도 흡사한 전북 새만금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대 중국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대 4개 지구 96.3km 규모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펼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신항거점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반면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36개 인·허가 처리절차가 생략되고 소득세·법인세 등의 조세감면과 외국인 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홍행기자 redplane@

## '이명박 특검법' 논란 확산

### 한나라당, 노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신당 "오만한 자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승리에 취한 오만한 자세'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는 전남에 이어 21일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가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침착하게 (특검법)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이명박 특검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BBK 특검법은 법의 형식만 빌린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신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신당은 특검 강행 입장을 고수

하며 한나라당에 '오만한 자세'를 버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에 승리했다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엮던 일로 하자 하는 것은 오만한 자세"라며 "모든 것을 특검에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당 일각에서는 특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부담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확산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 흔들기로 비칠 수 있는데다 특검이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한나라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던 청와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고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WANGJUILBO'S ACTIVATION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 2007. 3. 1(토) 오전 9시  
장: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1가 11-1 (남문동) 광주일보 본사  
코스: 남문동 - 남문로 - 남문동 (총 3.1km)  
신청기간: 2007. 1. 15(수) ~ 2. 15(수)  
신청처: 광주일보 본사 (062-367-3000) / 062-367-3001  
문의: 062-367-3000 / 062-367-3001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주관: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1가 11-1 (남문동) 광주일보 본사  
후원: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1가 11-1 (남문동) 광주일보 본사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주관: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1가 11-1 (남문동) 광주일보 본사  
후원: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1가 11-1 (남문동) 광주일보 본사

문의: 062-367-3000 / 062-367-3001